물가 '괴리'

휘발유 2천원대·식품 줄인상 불구

지역 상승률은 0.7%…14년來 최저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와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표 간에 괴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휘발유 값은 ℓ당 2000원을 돌파했고 라면, 참치캔 등 가공식품 가격도 줄줄이 올라 장바구니 물가는 최악인데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4년 만에 최저치라는 통계청의 발표는 현실과 너무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다.

3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8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광주 8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05.8(2010=100)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0.7%, 전남(106.6)은 0.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1999년 12월(0.2%) 이후 13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전남도 1999년 8월(0.9%) 이후 14년 만에 1% 미만의 상승률을 보였다.

광주·전남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개월 연속 둔화하면서 1% 미만의 상승률을 보였지만 폭염 등 궂은 날씨로 채소를 중심으로 한 장바구니 물가를 비롯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증가세는 여전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달보다는 0.7% 올랐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0.5% 내렸다

품목별로 광주는 시금치(65.6%), 수박(46.7%), 오이(26.2%), 호박(22.4%), 무(20.0%), 상추(13.5%), 참외(13.1%), 포도(12.8%) 등 채소류와 과일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전남도 한 달 사이 수박(55.6%), 시금치(53.6%), 시내버스료(52.2%), 오이(45.7%) 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

소비자 물가를 지출 목적별로 살펴보면 광주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통신(-3.4%), 오락·문화(-0.1)를 제외하고 의류·신발(4.8), 주택·수도·전기·연료(4.7), 음식·숙박(1.4), 가정용품·가사서비스(1.6), 주류·담배(0.9) 등 대부분 상승했다.

광주·전남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낮게 발표된 것은 기저효과와 월말에 집중된 태풍 영향이 덜 반영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구제역 후폭풍으로 돼지고기 값이 폭등한데다 기상악화로 신선채소 상승률이 광주는 11.6%, 전남이 23.9%나 급등했었다.

이 때문에 폭염과 고물가 여파에도 지난달 신선채소는 작년 8월 보다 오히려 광주가 18.2%, 전남이 16.1% 하락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으로 광주·전남지역 보육시설 이용료가 전년에 비해 28.9%가 하락했고 금융수수료도 24.0% 떨어지면서 소비자물가 하락을 이끌었다.

하지만 추석명절이 있는 9월과 10월에는 최근 급등한 국제곡물 가격의 영향을 받는 가공식품과 태풍 여파로 신선식품의 가격 인상분이 반영되면서 소비자 물가는 다소 오를 전망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추석선물 20% 싸게 드려요" 3일 (주)광주신세계가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진행 중인 '추석 기프트 예약 판매전'을 찾은 한 고객이 선물세트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백화점은 정육·굴비 등 선물세트를 최대 20% 할인 판매하는 예약 판매전을 13일까지 진행한다. 〈(주)광주신세계 제공〉

은행권 추석 앞둔 中企에 3조원

내달 15일까지

추석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급증한 중소기업에 은행들이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다음달 15일까지 최대 3조원 규모의 추석 특별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직원급여, 상여금, 협력업체 결제자금 등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액수는 은행별 차이가 있지만, 작년보다 최대 2배 정도 늘었다.

우리은행은 올해 추석에 3조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1조5000억원의 갑절이다. 금리 1.3%포인트 우대 혜택도 내걸었다. 하나은행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최대 2.25%포인트 감면된 금리로, 2조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작년 책정된 추석자금 1조원을 조기에 소진해 올해는 지원 규모를 두배로 늘렸다.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영업점장 전결로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은 2조원,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1조5000억원 정도의 지원 규모를 책정했다.

국민은행은 운전자금 범위에서 신규로 2조원, 기한연장으로 4조원을, 최대 1.0% 이내 우대금리로 지원한다. 영업점장 전결 범위를 넘어서면 주무 부서가 개별 승인을 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대출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담보나 보증서 대출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영업점 심사만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매출채권을 할인받는 중소기업에는 영업점장 금리 감면 외에 0.5%포인트를 추가로 감면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光銀 '인터넷 뱅킹 전용 대출' 출시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바쁜 직장인들을 위한 인터넷 뱅킹 전용 상품인 'KJB직장인 e-바로대출〈사진〉'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KJB직장인 e-바로대출'은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을 대상으로 대출 서류 준비 등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출시된 인터넷 신용대출 상품이다.

대출 대상자는 광주은행 인터넷 뱅킹 이용고객으로 은행에서 정하고 있는 기업체에 1년 초과 재직 중인자로 최근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기록이 12개월 이상 있는 최근 연소득 3000만원 이상의 급여 생활자다.

대출한도는 본인의 연소득 범위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며 대출금리는 3일 현재 신규COFIX6개월물 기준 최저 5.40%로 개인별 신용도에 따라 가산금리가 정해진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3년만기 車보험 나왔다

메리츠화재 자동갱신 특약 개발

자동차 보험을 3년마다 가입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보험 상품이 이달 중순 선보인다.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무배당 연금보험도 이달 출시된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창사 90주년을 맞아 3년 만기 자동차보험을 판매하기로 하고 이달 중순 내놓기로 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을 3년 만기로만 팔면 고객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이 상품의 구조를 3년 만기를 기본으로 하되 매년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메리츠화재는 3년 만기로 가입해 매년 자동 갱신하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 고객이 3년 만기를 채울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그동안 자동차보험은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만기가 됐다. 이후 운전자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손보사로 갈아탈 수도 있다. 운전자는 매년 갱신 때마다 보험사 간 보험료를 비교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다. 손보사들은 기존 고객을 뺏기지 않으면서 타사 고객을 데려와야 해 적잖은 비용을 들였다.

3년 만기 자동차 보험은 이 두 가지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메리츠화재 측이 설명했다. /연합뉴스

재해복구비 대출

국민연금공단 광주본부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노대우)도 태풍 피해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피해 정도에 다라 재해복구비 대출을 해준다.

재해를 당한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는 재해 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사실 확인서를 가까운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피해정도에 따라 500만원 한도내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문의 국번없이 1355. /최재호기자 lion@

전남신보, 태풍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전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계연)은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조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키 위해 재해특례보증을 시행한다.

대상은 재해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 중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이며 재해 발생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했거나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당해 재해복구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자금지원은 피해금액 범위내 최고 5000만원(제조업 1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보증료를 일반보증의 절반수준인 연 0.5%의 고정보증료율(특별재해지역 선포 시 연 0.1%)을 적용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jnsinbo.or.kr). /최재호기자 lion@

'간 기능 개선' 식약청 인증

그린알로에 '그린파워리버캅' 출시

광주에 본사를 둔 알로에 전문기업 그린알로에가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그린파워리버캅'을 출시했다.

'그린파워리버캅'은 세계적으로 간 질환 보조제로 인정받은 '밀크씨슬'을 주원료로 사용했다.

밀크씨슬은 엉겅퀴 풀의 일종으로, 2000년 전부터 유럽 민간에서 간 건강을 목적으로 사용돼왔다. 밀크씨슬 추출물은 식약청으로부터 간 기능 실험을 통해 GOT, GPT(간 건강지표 나타내는 효소) 수치 개선 효과를 인정받았다. 또 기능성분인 '실리마린'을 식약청 기준 1일 최대함량인 130㎎까지 주원료로 함유했고, 건조효모에서 추출한 천연원료 비타민 7종과 미네랄 4종을 함유해 에너지 대사 활성에 도움을 준다.

부원료 역시 간에 좋다고 알려진 표고버섯균사체·헛개나무 열매·운지버섯·민들레·울금·굴 추출물과 알로에베라겔, 세인트존스워트, 글루타치온 등을 함유하고 있어 종합적인 간 기능 개선에 좋다.

정광숙 그린알로에 대표는 "그린파워리버캅은 밀크씨슬 추출물과 천연 비타민, 미네랄을 주원료로 함유해 간 건강은 물론 균형 잡힌 영양섭취까지 챙길 수 있다"며 "잦은 음주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에 노출된 현대인들에게 추천한다"고 말했다.

문의 080-234-6588.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